

0. 비문학 지문 구성 0원칙

이항대립 구도

기출분석의 본질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공통적 사항들을 정리하여 지문 독해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 아래와 같이 ㉠, ㉡ 두 개를 묶은 문제의 유형들이 자주 보입니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2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1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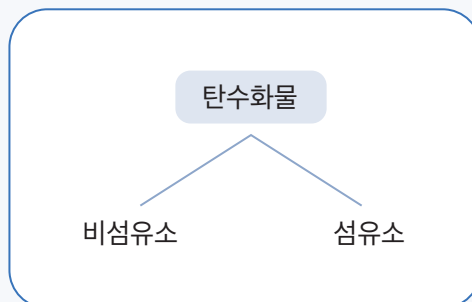
출제자가 아무런 연관성 없는 두 대상을 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관련성 있는 두 개의 대상을 묶게 되면 두 대상의 관계인 공통점/차이점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항대립’이라 인식되는 순간 독해 목표는 차이점 찾기로 바뀌게 됩니다. **위 사항을 독해에 반영하여 만든 도구가 ‘이항대립’입니다.** 비문학의 모든 지문은 ‘이항대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실천 행동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7 수능 ‘반추위 미생물’ 지문 1~3문단

1문단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설탕유소와 비설탕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설탕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설탕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설탕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①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설탕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설탕유소와 설탕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이항대립 시작점: 구분된다/분류된다/나뉜다/구성된다



‘구분된다’ 라는 서술어를 통해 탄수화물을 설탕유소와 비설탕유소 두 개의 항으로 위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를 이항대립이라 합니다.

이항대립 구도를 인식하는 순간, 다음 독해 목표는 설탕유소와 비설탕유소의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문을 읽어보니, 비설탕유소는 사람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설탕유소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차이점에만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즉 이항대립은 차이점을 찾도록, 명확한 독해 목표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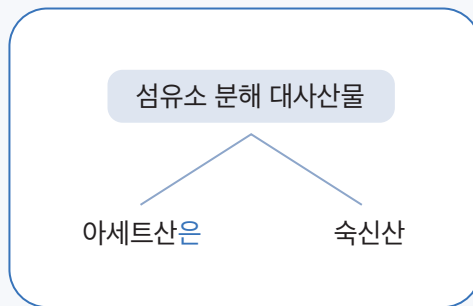
이항대립 구도를 통해 차이점을 찾을 때는, 중간지점이 없는 확실한 대립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상이 만약 3개 이상 나열되어 있다면 이항대립 구도라 칭하지 않습니다.

예시 에너지원 이용 O ↔ 에너지원 이용 X

2문단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 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 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④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 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 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이항대립 시작점: 보조사 '은/는'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 등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이항대립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읽다보니 '아세트산[은]'이 나왔습니다. 보조사 '은/는'이 역할은 대조입니다. 따라서 아세트산 뒤에 '숙신산' 역할 또한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항대립 구도가 발생하였기에 아세트산과 숙신산의 차이점을 찾아야 한다면 독해 목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이 되고(주제), 숙신산은 다른 미생물 에너지원이 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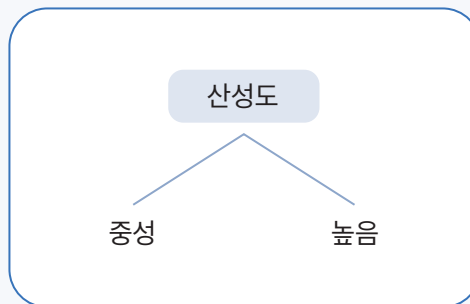
comment

위 아세트산, 숙신산처럼 대상 두 개가 나란히 나열되면, 무조건적으로 이항대립 지문일 것이라 예측하고 읽는 독해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혹여 이항대립이 아니라면 읽으면서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3문단

반추위에는 비섭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⑥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이항대립 시작점: 단어의 구분



산성도가 ‘중성’일 땐 아세트산과 에탄올이 배출됩니다. 반면 산성도가 (중성보다) ‘높아’질 땐 젖산이 배출됩니다.

‘중성’과 ‘높다’라는 단어적 대립을 통해서 이항대립 구도를 형성하여 차이점을 또 찾습니다. 산성도가 높아질 때 나오는 젖산은 **반추동물의 직접적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주제)**

comment

‘중성’과 ‘높음’이라는 단어가 대립적인가?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제자가 반드시 접속어를 주게 됩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반면’이라는 접속어를 통해 대립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지문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출제자가 지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위 사례처럼 개념의 대립구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교/대조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며 독해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1. 비문학 지문 구성 1원칙 P/S구조

부제: 완벽한 글은 ‘문제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출제자가 글을 쓰기 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은 어떤 문제의식을 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글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나 교재에서 Problem(문제) / Solution(해결책) 구조를 다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 칼럼을 학습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비로소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 원인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독해 중 이를 놓치는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Problem(문제) → 원인 → Solution(해결책)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글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책의 한계까지 제시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blem(문제) → 원인 → Solution(해결책) → 한계점

예제 1 2020학년도 수능 > [과학]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이중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문제점 P 인식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 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원인 인식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 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 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원인 구체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해결책 S 인식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omment 1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문제점, P)는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P/S 확장 구조에 따라 이는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comment 2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생성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독자의 기본적인 독해 태도입니다. 단순히 ‘원인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인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comment 3

앞선 칼럼에서 학습한 **이항대립**의 관점을 적용하여 읽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즉, ‘레트로바이러스’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중심에 두고 독해했다면 매우 적절합니다.

☑ 레트로바이러스: 특정 세포에만 감염 내인성

☑ 레트로바이러스: 모든 세포에 감염

이러한 **대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원인을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이 독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선택들이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아래 29번 문항의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무지성 기출풀이가 아닌 올바른 기출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제 2 2018학년도 수능 > [사회] 정책 수단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comment

‘단기적으로 환율이 괴리되는 현상’이 문제(P)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괴리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는 물가 경직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물가 경직성이 어떻게 환율 괴리를 유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독자의 역할입니다.

다음 문단에는 정보가 다소 많습니다.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고,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반면, 환율은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신축적이다.”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꼈다면, **독해의 기준점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문제(P)는 ‘단기적 환율 괴리’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의 내용**입니다.

단기: 물가는 경직적이고,

단기: 환율은 신축적이다.

이 두 요소가 **환율 괴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만 파악하면 됩니다. ‘장기’ 정보는 이 문맥에선 불필요한 잡음일 뿐입니다.

위와 같이 환율 괴리의 원인을 충실히 독해했다면 물가 경직과 환율의 신축 관련 내용, 즉 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출제자가 묻고자 함을 아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번도 당시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P/S 구조를 통해 **예측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먼저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비문학 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 보이면,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독해 전략입니다.)

예제 3 2017 수능> [사회] 보험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㉞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㉟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comment 1

지문에서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comment 2

지문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잘 파악하며 독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지의무'라는 생소한 어휘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휘가 등장했다면, 그것은 해결책이 등장했음을 뜻합니다. P/S 확장구조에 따라 해결책이 나올 때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아래 문제를 보셔도 또 P/S구조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

윗글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예제 4 2022수능>[사회] 브레턴 우즈 지문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 되었다.

comment 1

한계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항상 접속어와 함께 나타납니다. 해결책 뒤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같은 접속어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한계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comment 2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이라는 해결책도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지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 매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P/S구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 문제이지 경제학도를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 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해결책 2 평가절상 적용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 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comment

기축통화인 A국 통화에 대해 **B국과 C국의 환율이 하락**한 상황은 지문에서 제시된 ‘평가절상’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국 환율**이 **C국 환율**보다 더 많이 하락했으므로, 이는 **C국이 자동적으로 B국에 대해 평가절상**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가절상**이라는 해결책은 결국 **경상수지**라는 원인을 제거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었겠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제 5 2022수능>[기술] 차량 카메라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보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①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①**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comment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왜곡**은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점 P**를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P/S 확장구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왜곡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보자”라는 **독해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해결책**을 찾아가면 됩니다.

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 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P/S 확장구조를 정확히 인지하고 풀었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선택지를 간단히 스캔하고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P/S 확장구조를 배우는 목적을 다시 명확히 하자면

문제점을 인식 후, 원인-해결책-한계점 등

글의 거시적 구조를 예측하여 독해 안정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2.

비문학 지문 구성 2원칙

재진술 (PARAPHRASING)

재진술이란?

‘같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글의 통일성과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 **출제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형**해서 표현합니다. 재진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단 구성 예시

- ㄱ. A는 B이다 (핵심문장)
- ㄴ. A'는 B'이다 (ㄱ의 재진술1)
- ㄷ. A''는 B''이다 (ㄱ의 재진술2)

이 구조에서 ㄱ이 중심 내용이라면, ㄴ과 ㄷ은 모두 ㄱ의 재진술로서,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에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재진술은 왜 중요한가?

비문학을 읽다보면 어떠한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캐치하지 못하여 시간이 낭비되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독해 중 **모르는 문장이 나올 때**, 무작정 멈추지 말고 **‘재진술 구조’를 의심**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주제’를 향해 재진술되므로, **한 문장을 이해하면 문단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모두 재진술 학습을 위한 A, B 표현을 넣었습니다)

예제 1 2023수능>사회>법령의 요건과 효과의 불확정 개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 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 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comment 1

이해가 안 되는 문장: “법령의 요건과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 ‘일의적’이라는 어휘를 몰라도 다음 문장에서 재진술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때문이다’를 통해 앞 문장을 부연하며 ‘불확정 개념’이라는 재진술이 나옵니다.

→ **추론**: “요건과 효과는 일의적 즉 불확정적이다.”

 **TIP**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재진술된 문장을 기다려라.

comment 2

A“는B”이다 문장을 읽을 때는, ‘법령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식으로 앞에서 파악한 A는 B이다의 **핵심 내용을 결합하여 하나의 주제로 묶어 이해**해야 합니다.

comment 3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문단이 재진술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글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예외 유형	설명
이항 대립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비교하는 글
단계 설명	시간 순서나 절차를 설명하는 글
과정 설명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

예제 2 2025 수능>기술>노이즈 과정

1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A)노이즈를 ^(B)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A')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B')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때 ^(B'')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2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A)노이즈를 제거하여 ^(B)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A')이미지 연산기는 ^(B')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에 ^(B'')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comment 1

① 문단에서는 순확산 과정(A)이 노이즈를 점차 추가(B)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지문을 보면 각 단계마다 노이즈가 반복적으로 추가(B', B'', B''')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러한 **노이즈의 축적 과정이 이 문단의 핵심 주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② 문단에서는 역확산 과정(A)이 노이즈를 점차 제거(B)하는 과정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노이즈의 점진적 제거**입니다. 모두 한 문장으로 집결되어 주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comment 2

순확산 과정을 볼 때는 단순히 **노이즈가 추가된다**는 점만 보아선 안 됩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이미지에 노이즈가 더해지는지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전 단계의 확산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됩니다. 역확산 과정도 동일하게, **어떤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지** 단계별 차이를 인식하며 읽어야 합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 ②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③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 한다.
- ④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 ⑤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든다.

 **풀이 TIP** 역확산 과정 단계가 반복되면 노이즈가 제거되어 가기에 원본이미지와 유사하게 됩니다.

12.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 ②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 ③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 ⑤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풀이 TIP 역확산 과정에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제거되어 가기에 단계별 확산이미지에서 노이즈 값이 계속 달라집니다.

예제 3 2022수능>인문철학>헤겔의 미학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comment 1

위 문단에서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낯선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어려워 다음 문장을 살펴보니, 이를 ‘변증법의 구조’라고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증법’도 낯설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문장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로 나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 문장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정립-반정립**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고, **종합**은 그 둘이 통합되는 조화로운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단의 핵심은 ‘변증법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comment 2

낯선 문장을 이해할 때는, 뒤에 나오는 재진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어려운 표현이 나올수록,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문장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어를 안정적으로 독해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comment 3

학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제자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처음에 제시한 뒤, 후속 내용에서 이를 **부연 설명**하며 **재진술**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